

베이징모터쇼 4년 만에 개막...117개 차량 첫 선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부분변경 세계 최초 공개



자동차 업계의 풍향계로 불리는 중국 최대 자동차 전시회 '2024 18회 오토 차이나(베이징 모터쇼)'가 25일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25일 증권시보(证券时报) 등 현지 매체는 지난 2년 전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개최가 불발된 베이징 모터쇼가 올해 4년 만에 역대급 규모로 돌아왔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올해 베이징 모터쇼는 중국 현지 시장의 치열한 가격 전쟁을 반영하듯 국내·외를 막론하고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모터쇼에는 전 세계 각지에서 온 1500개 기업이 모터쇼에 참가했다.

이번 모터쇼에서는 세계 최초의 월드 프리미어 차량 117대와 콘셉트카 4대가 공

개된다. 이중 해외 기업의 최초 공개 차량은 30대에 달한다. 모터쇼에 모습을 드러낸 신에너지 자동차는 278대로 자동차 제조업체의 전동화가 가속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베이징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도 이번 모터쇼에서 전시 부스를 꾸렸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N과 신형 싼타페, 투싼을 공개한다. 기아는 소형 SUV 쏘네티를 중국에서 처음 공개하고 전기차 EV5를 전시한다. 제네시스는 첫 번째 럭셔리 대형 전동화 세단 'G80 전동화 모델'의 부분 변경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과거 모터쇼와는 달리 올해 모터쇼에는 특히 외국인 얼굴이 눈에 띄게 늘었다. 초청자동차는 이번 모터쇼에 해외 투자자 800명과 외신 대표 200명을 초청했고 체

리자동차도 수많은 파트너와 공급업체를 포함한 외국인 참가팀을 별도로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모터쇼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된 브랜드는 단연 샤오미였다. 실제로 모터쇼 개막 당일인 25일 아침 8시 샤오미의 기자회견이 시작되기도 전에 샤오미 자동차 부스 근처는 이미 관람객 인파로 가득 찼다. 일부 관람객은 "이번 모터쇼에서는 샤오미만 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화웨이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화웨이는 이번 모터쇼에서 AITO 원지에M9, 신M7, 신M5 등 전기차 모델을 선보이는 것 외에도 자동차 스마트화 분야의 기술적 우세를 시연했다. 이에 앞서 화웨이는 베이징 모터쇼 개막 전날인 24일 새로운 스마트카 솔루션 브랜드 쉰쿤(乾崮)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밖에 동펄, 상치, 창안, 베이치, 지리, BYD, 체리, 사이리스 등 중국 자체 브랜드도 이번 모터쇼에 참석해 최신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뽐낼 예정이다.

샤오미 SU7 출시 28일 만에 주문 7만 5000대 돌파

중 스마트폰 시장서 정상 궤도 회복



중국 전자제품 제조업체 샤오미(小米)의 첫 전기차 SU7의 주문 확정 수가 출시 28일 만에 7만 5000대를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25일 증권시보(证券时报)에 따르면, 레이쥘 샤오미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18회 베이징 국제 자동차 전시회에서 지난 24일까지 샤오미 SU7 주문 확정 수가 7만 5723대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레이쥘 회장은 이날 "지난주 토요일 SU7 주문 건수가 7만 대를 돌파한 뒤로 테슬라의 가격 인하, 경쟁사의 주문 쟁탈 등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면서도 "SU7의 최신 주문 확정 건수는 7만 5723대로 특히 최근 나흘간 6000대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샤오미 SU7의 출시 28일간 고객에 인도된 차량 수는 5781대로 집계됐다. 레이쥘은 이어 "SU7 차주 가운데 여성 직접 구매 비중 28%로 예상 이용 비중은 40~50%, 벤츠·BMW·아우디(BBA) 이용자 비중은 29%, 애플 이용자는 51.9%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6월 인도량 1만 대 돌파를 목표로 제시하며 "이는 자동차 신세력으로 기록을 경신하는 것"이라고 자신했다.

레이쥘은 또한 "2024년 말까지 전국 모든 성(省)에 판매 서비스 지점을 오픈할 계획으로 판매 매장 수는 46개 도시 내 219곳, 서비스 센터는 86개 도시 내 143곳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샤오미의 두 번째 자동차는 순수 전기 SUV로 오는 2025년 상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디자인은 SU7 수준을 이어갈 예정이며 샤오미의 세 번째 자동차는 15만 위안급으로 오는 2026년 선보일 예정이다.

화웨이, 샤오미 고객 뺏기

"샤오미 차 예약자에 5000원 지원"

중국의 대표 휴대폰 브랜드이자 샤오미와 전기차 경쟁 상대인 화웨이(华为)가 본격적으로 샤오미 고객 뺏기에 나선다.

22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최근 새로 출시한 전기차 렉시드S7(智界) 판매를 위해 샤오미 SU7모델 예약자에 대해 할인 지원에 나선다. 현재 렉시드S7을 구입하고 잔금까지 지불한 고객에 대해 차량 가격 5000위안을 환불해 준다. 샤오미 SU7을 예약한 뒤 계약을 철회할 경우 환불 받지 못하는 예약금이 5000위안이기 때문.

21일 쓰촨 청두의 한 화웨이 체험관에 실제로 이 같은 지원책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사실이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샤오미 SU7 출시 후 화웨이 측은 샤오미 독주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을 마련해 5월 말까지 계속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화웨이 매장을 찾은 고객들은 샤오미 전기차 출고 기간 때문에 다른 브랜드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해당 매장에서는 전국의 모든 매장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화웨이 체험관, 화웨이 공식 사이트 및 기타 공개 채널에서는 모두 이와 관련한 정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렉시드S7은 지난 11일 화웨이와 체리(奇



瑞, 치루이)자동차가 공동 개발한 전기차로 화웨이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 HUAWEI ADS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 판매가는 24만 9800위안(약 4755만 원)부터다. 업계에서는 2024년을 화웨이 '자동차'의 해로 보고 아이토(问界) 신제품 M5, M8, M9 등을 계속 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다소 공격적인 화웨이의 전략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2024년 가을학기 상해교통대학 외국인 유학생 오프라인 어학연수 모집내용

450원 원서접수비 무료

오프라인 수업	장기어학연수 프로그램	한학기 주부반(오전반) (기초반, 중급반)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파트 타임제 어학연수 프로그램
학기	가을학기: 2024년 9/18 ~ 2025년 1/10 2025년 봄학기: 2025년 2/17 ~ 6/13	가을학기: 2024년 9/18 ~ 2025년 1/10 2025년 봄학기: 2025년 2/17 ~ 6/13	4주: 7월 1일 ~ 7월 26일	가을학기: 2024년 9/19 ~ 2025년 1/10 2025년 봄학기: 2025년 2/18 ~ 6/13
신청기간	2024년 가을학기: 2024년 3/15 ~ 6/20 2025년 봄학기: 2024년 9/18 ~ 12/31	2024년 가을학기: 2024년 3/15 ~ 6/20 2025년 봄학기: 2024년 9/18 ~ 12/31	3월 1일 ~ 5월 20일	2024년 가을학기: 2024년 3/15 ~ 6/20 2025년 봄학기: 2024년 9/18 ~ 12/20
학습기간	월~금요일 반나절 수업 4교시/30분 휴식 오전: 8:20~11:40 오후: 12:55 ~ 16:25	월 ~ 금요일 9:00 ~ 12:00 (10분 휴식)	월 ~ 금요일 오전수업: 8:20 ~ 11:40	화요일, 목요일: 저녁반 18:30 ~ 21:05
원서접수비	원서접수비: 인민폐 450원, 원서접수시 광고지 업데이트 하면 원서접수비 무료.			
등록금	한학기: 인민폐 10,500 원 1년: 인민폐 21,000원 ※신체과목, 문화체험 포함, 여형 별도	한학기: 인민폐 10,500 원 1년: 인민폐 21,000원 ※신체과목, 문화체험 무료, 여형은 별도	인민폐 5,000원	비즈니스 중국어: 인민폐 8,100원/학기 종합 중국어: 인민폐 6,900원/학기

온라인 신청: applychinese.sjtu.edu.cn | iso@sjtu.edu.cn | +0086 21 6282 0638

주소: 上海交通大学人文学院国际化办公室(教学一楼 105A室) 中国上海华山路 1954号(或番禺路 655号)

